

錄 取 書

녹 음 일 시	2014년 4월 16일 9시 8분 ~ 11시 55분
녹 음 장 소	해양경찰청 경비전화(2442)
대 화 자	본문 기재
녹 취 분 량	표지 外 80쪽

본 녹취록은 녹음CD의 내용과 일치함을 증명함.

2016년 4월 19일

속기 법 인 대 한

(사업자등록번호 : 264-81-30602)

속기사 林鍾憲 (印)

(자격번호 : 06-G2-000008)

- ▶ 본 녹취록은 녹음일시, 장소 및 대화자, 지문의 설정은 의뢰인이 한 것이며, 녹음 청취의 미비 등으로 인한 명사나 고유명사의 표기에 오기가 있을 수도 있음.
- ▶ 이해력을 돕기 위하여 불필요한 어구 침삭이나 일부 사투리, 어순 정리는 속기사의 재량으로 정리 하였음.
- ▶ '***' 표시는 청취불능 표시임.



◆ 녹음 순번 : #01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09시 08분 56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손용수 / 서해청 상황실

남자 2 : 예.

손용수 : 예. 고생해요. 본청 상황실 손 경사입니다.

남자 2 : 예.

손용수 : 512 있죠? 헬기 펜더.

남자 2 : 512요?

손용수 : 예. 그게 어제 신고 나갔나요? 아니면 오늘 아침에 뜨지는 않았을 텐데.

남자 2 : B-512요?

손용수 : 예. 1508에 있는 거.

남자 2 : 1508에. 예. 지금 헬기 관련해서 보고가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손용수 : 아~ 어제 나갈 때 나간 겁니까? 아니면,

남자 2 : 예. 잠시만요. 상황 생겨가지고요. 조금 이따 전화 드리겠습니다.

손용수 : 예, 알겠습니다.





◆ 녹음 순번 : #02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09시 17분 07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손용수 / 서해청 상황실

남자 1 : 예.

손용수 : 예. 본청 상황실 손 경사인데요.

남자 1 : 예.

손용수 : 예. 지금 판매도 밑에 세월호라고 여객선 들었습니까?

남자 1 : 예, 들었습니다. 조치하고 있습니다.

손용수 : 조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 어디에 하고 있어요?

남자 1 : 예?

손용수 : 띄울 수 있는 거 다 하고 초기 대응을 잘 하십시오.

남자 1 : 예, 알겠습니다.

손용수 : 예.

— 끝 —



◆ 녹음 순번 : #03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09시 19분 28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손용수 / 교통계 직원

여자 1 : 감사합니다. 교통계 장 경사입니다.

손용수 : 예. 본청 상황실 손 경사입니다. 지금 현재 목포 관내 관매도 밑에 여객선이 지금 침수된 건지 좀 배가 기울어서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여자 1 : 어디서요? 목포예요?

손용수 : 예, 예. 지금 거기 교통계 아닙니까?

여자 1 : 교통계 맞는데 목포 어디신가요? 상황실이요?

손용수 : 본청 상황실입니다. 지금 세월호라고 있으니까 보고를 하십시오, 그쪽에서.

여자 1 : 잠시만요. 그거 말씀해 주셔야지. 목포에,

손용수 : 목포 관매도, 관매도 밑에... 내려오십시오. 내려와. 내려와가지고.

여자 1 : 아, 예, 알겠습니다.

손용수 : 예.





◆ 녹음 순번 : #04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09시 27분 20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손용수 / 기자

손용수 : 예. 감사합니다. 상황실의 손 경사입니다.

남자 1 : 예. 수고 많습니다. 대구 MBC 이준입니다.

손용수 : 예, 예.

남자 1 : 예. 그 카페리 때문에 전화 드렸는데요.

손용수 : 무슨 건 때문에 그렇습니까?

남자 1 : 예?

손용수 : 뭐 어떤 거 말입니까?

남자 1 : 인천에서 제주 가는 카페리요.

손용수 : 예, 예.

남자 1 : 예.

손용수 : 그러니까요.

남자 1 : 그 상황 들어온 것 좀 받으려고 그러는데요.

손용수 : 아...

남자 1 : 진도 서쪽 몇,

손용수 : 아, 지금 바쁘거든요. 좀 이따... 병풍도 바로 옆입니다.

남자 1 : 예?

손용수 : 병풍도 바로 옆에요.

남자 1 : 병풍도 옆에요?

손용수 : 예, 예.



속기법인 대한은 업무상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합니다.

남자 1 : 알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손용수 : 예.

남자 1 : 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1010 1011 1012 1013 1014 1015 1016 1017 1018 1019 1020 1021 1022 1023 1024 1025 1026 1027 1028 1029 1030 1031 1032 1033 1034 1035 1036 1037 1038 1039 104



◆ 녹음 순번 : #05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09시 31분 52초

◆ 대 화 자 : 본청 수색구조과 신광일 / 서해청 상황실장

남자 1 : 예.

신광일 : 예. 수고합니다. 본청 재난대응계 신 경감인데요.

남자 1 : 예, 예.

신광일 : 배가 항해가 가능하면 되도록이면 자주시키는데,

남자 1 : 항해 불가능하대요.

신광일 : 항해 불가능해요?

남자 1 : 예, 예.

신광일 : 그러면 닻을 놓으면 안 되나요?

남자 1 : 아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통화를 하고 해도 좌현으로 약 40도 경사졌는데 지금 그럴 경향도 없고,

신광일 : 그러면 구명동의 빨리 착용해야겠네요.

남자 1 : 예?

신광일 : 알겠습니다, 실장님.

남자 1 : 예, 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손용수 / 서해청 상황실

손용수 : 예.

[illegible]



◆ 녹음 순번 : #07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09시 35분 02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손용수 / 남자 1

손용수 : 예. 감사합니다. 상황실 손 경사입니다.

남자 1 : 예. 고생 많으시죠. 본청 파견 나온 원성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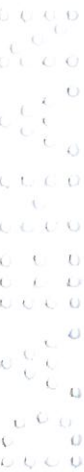
손용수 : 예, 예.

남자 1 : 엄청 바쁘신데 전화 드려서 죄송한데요.

손용수 : 아, 지금 바쁘니까 좀 와서 하십시오.

남자 1 : 예.

손용수 :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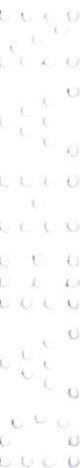


◆ 녹음 순번 : #08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09시 35분 35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손용수

손용수 : 예. 감사합니다. 상황실... (전화 끊김)





◆ 녹음 순번 : #09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09시 42분 00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손용수 / 기자

손용수 : 예. 감사합니다. 상황실의 손 경사입니다.

남자 1 : 예. 안녕하세요. 저는 MBC 이덕영 기자인데요.

손용수 : 예.

남자 1 : 인천에서 제주 가던 여객선 침몰 중이라는,

손용수 : 예. 지금 ** 사고 진행 중이고요. 지금 되는 대로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이쪽은,
이쪽으로 주시면 안 되고요. 대변인 쪽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남자 1 : 몇 번? 몇 번으로 하면 될까요?

손용수 : 032-835-2512, 2312.

남자 1 : 2512번이요?

손용수 : 예.

남자 1 : 032요?

손용수 : 예, 예.

남자 1 : 예, 감사합니다.

손용수 : 예. 수고하세요.





남자 1 : 도착했습니까?

손용수 : 예, 도착했어요. 배 옆에 도착했고, 항해 중인 상선 2척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자 1 : 아, 그렇군요.

손용수 : 예. 그리고 헬기도 떴고요.

남자 1 : 헬기도 현장에서 **

손용수 : 예.

남자 1 : 그러면 인명 피해 상황은 **

손용수 :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여보세요?

남자 1 : 예, 예. 인명피해가 지금 확인된 게 있나요?

손용수 : 없습니다, 지금.

남자 1 : 아, 없고, 앞으로도 지금은 도착해 있으니까 상황 수습 중이네요.

손용수 : 예. 지금 474명 땀고요.

남자 1 : 474명이요?

손용수 : 예.

남자 1 : 감사합니다.

손용수 : 예.





◆ 녹음 순번 : #11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09시 47분 53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손용수 / 머니투데이 기자

손용수 : 예. 상황실 손 경사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남자 1 : 예. 고생하십니다. 저 머니투데이에 우경희 기자인데요.

손용수 : 예.

남자 1 : 지금 사고 수습된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손용수 : 예. 뭐요? 잠깐만요.

남자 1 : 예. 인원이 몇 명인지 ** 나오는데,

손용수 : 예, 474명입니다.

남자 1 : 474명.

손용수 : 예, 예.

남자 1 : 수학여행객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요?

손용수 : 예?

남자 1 : 수학여행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요?

손용수 : 아, 지금 그건 파악 안 됐어요.

남자 1 : 아, 그렇구나.

손용수 : 예.

남자 1 : 인명피해나 이런 건,

손용수 : 지금 아직 옆에 우리 경비정이 도착해가지고 구조 중에 있습니다.

남자 1 : 그렇군요. 아직 뭐 구조 중이라고 하시면 배가 뭐 바로 침몰되거나 그런 건 아니겠네요.



손용수 : 예.





◆ 녹음 순번 : #12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09시 49분 16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손용수 / 해양수산부 상황실

손용수 : 예. 감사합니다. 상황실 손 경사입니다.

남자 1 : 예, 안녕하십니까? 해수부 상황실의 박인동 주무관입니다.

손용수 : 예.

남자 1 : 제일 가까운 함정 도착 예정이 언제인가요?

손용수 : 지금 현재 도착했습니다.

남자 1 : 아, 현재 도착했어요?

손용수 : 9시 30분,

남자 1 : 40으로 시작되는 그게 함정인가 보네요?

손용수 : 예, 예.

남자 1 : 영상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손용수 : 예, 알겠습니다.





◆ 녹음 순번 : #13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09시 50분 25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손용수 / 안전행정부 중앙안전상황실

손용수 : 예, 감사합니다. 상황실의 손 경사입니다.

남자 1 : 아, 수고 많으세요. 여기 안전행정부 중앙안전상황실 임택호 중령인데요.

손용수 : 예.

남자 1 : 그게 인천에서 몇 시에 출발한 여객선입니까?

손용수 : 18시 30분입니다.

남자 1 : 어제 18시 30분, 15일 18시 30분.

손용수 : 예.

남자 1 : 아, 그래서 제주도 가는 건데 몇 시경에 지금 침몰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손용수 : 오늘 9시에 접수됐네요. 저희들 확인되는 대로 할게요. 지금 그것은 확인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남자 1 : 예, 예.

손용수 : 예, 알겠습니다.

남자 1 : 지금 현재 해경이 1,500톤급 2척, 1,000톤 1척, 300톤 1척, 해군도 4척이 출발했다 이거죠? 4척, 2척.

손용수 : 예, 예.

남자 1 : 예. 기타 뭐 지금 현재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손용수 : 지금 현재 우리 헬기 2대, 우리 경비정 1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남자 1 : 헬기 2대, 경비정 1대.

손용수 : 예.



남자 1 : 1대 현장 도착.

손용수 : 예. 지금 편승하고 있습니다. ** 현장 P정 경비정에서 현장 지휘...

남자 1 : 여보세요? (전화 끊김)





◆ 녹음 순번 : #14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09시 51분 45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손용수 / 경찰청 위기관리실

손용수 : 예. 감사합니다. 상황실 손 경사입니다.

남자 1 : 예. 경찰청 위기관리실 장동원입니다.

손용수 : 예.

남자 1 : 진도 상황 관련해가지고 혹시 해경 헬기하고 함정 몇 대 정도 나갔습니까?

손용수 : 지금 헬기 2대, 그다음에 경비정 1척, 그다음에 상선 3척 정도 있습니다.

남자 1 : 경비정 1척하고 상선 3척입니까?

손용수 : 여보세요?

남자 1 : 상선이 3척입니까? 일반 배가 3척입니까?

손용수 : 예, 예, 일반선.

남자 1 : 일반 배가 3척, 경비정 1척.

손용수 : 예.

남자 1 : 현재 침몰된 상황이 급박한 겁니까? 아니면,

손용수 : 예. 지금 현재 옆 쪽에 붙어 있으니까요. 가능합니다.

남자 1 : 아, 구조가 전부 다 가능한,

손용수 : 예.

남자 1 : 구조가 전부 다 가능하고.

손용수 : 예, 가능합니다.

남자 1 : 구조 전부 가능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육경에서 뭐 도와드릴 거 뭐 없으십니까?

손용수 : 아... 지금 육경이죠?





남자 1 : 예, 예.

손용수 : 아, 지금 우리가 다 했으니까, 이쪽에서 우리 해경에서 해군하고 다하고 있으니까요, 뭐 그건 없습니다.

남자 1 : 해군에서는 딱히 뭐 들어가는 건,

손용수 : 지금 해군에서 지원했습니다. 지원한다고 들어왔습니다.

남자 1 : **

손용수 : 예.

남자 1 : 아직 도착은 안 했고요? 그렇죠?

손용수 : 예.

남자 1 : 그러면 헬기 2대, 경비정 1척하고 상선 3척이 현장에 지금 도착해 있네요.

손용수 : 예, 예.

남자 1 : 고생 많겠습니다.

손용수 : 예.

남자 1 : 많고, 전부 다 구조할 수 있다고.

손용수 : 예.

남자 1 : 침몰 원인 같은 건 모르죠?

손용수 : 예. 지금 안 나옵니다.

남자 1 : 아직 안 나오죠?

손용수 : 예.

남자 1 : 인원은 350명으로 보면 되는 거죠?

손용수 : 예, 알겠습니다.

남자 1 : 예, 알겠습니다.

손용수 : 예.





◆ 녹음 순번 : #15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09시 53분 29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손용수 / 소방방재청 / 안전행정부 재난관리국장

손용수 : 예. 감사합니다. 상황실 손 경사입니다.

남자 1 : 예. 죄송합니다. 여기 소방방재청인데요. 상황실장님 계십니까? 우리 안행부 국
장님께서 통화 좀 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손용수 : 지금 실장님 대응하고 계시는데. 뭐 궁금한 거 물어보십시오.

남자 1 : 아니, 잠깐만요.

손용수 : 예.

남자 2 : 여보세요?

손용수 : 예. 안녕하십니까? 말씀하십시오.

남자 2 : 예. 안전행정부 재난관리국장입니다.

손용수 : 예. 안녕하십니까? 상황실의 손 경사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남자 2 : 예.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손용수 : 지금 현재 상황이 배가 좀 많이 기울어지고 침수 상태에 있습니다.

남자 2 : 예?

손용수 : 여객선이요, 관매도 바로 위에 병풍도 있거든요. 병풍도,

남자 2 : 위험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손용수 : 우리 경비정 1척 도착했고요. 헬기 2척,

남자 2 : 도착했어요, 지금?

손용수 : 예, 도착했습니다. 그 배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헬기가 지금 2대 현장에 붙어
있습니다.



남자 2 : 아~ 헬기로?

손용수 : 예. 그리고 총 실세력은 저희들이 지금 현장에 현재 도착한 세력이요, 구조세력이 경비정이 우리 경비함정 1척, 헬기 2대, 그다음에 헬기 구조 지원하는 상선 3척이 있습니다.

남자 2 : 예. 그런데 지금 위험도는 어때요?

손용수 : 지금 위험... 침수하면 지금 바로 옮겨 싣고 있습니다, 지금. 옮겨 싣고 있고, 지금 침몰 정도 상황은 아직,

남자 2 : 침몰 거의 지금 직전인 모양이에요, 90도 기울었다는 것이.

손용수 :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남자 2 : 아... 그래요. 지금 그러면 50% 기울었다는 것도 나오고 어떤 것은 또 90도 기울었다고 나오네요.

손용수 : 예, 예. 지금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 있는 경비함정에서 지금 찍은 걸 봐야 되는 데요. 지금... 잠깐만 계십시오. 저희들도... 전화 끊지 마십시오. 제가 확인되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 2 : 예.

손용수 : 여보세요?

남자 2 :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손용수 : 예.

남자 2 :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손용수 : 아니, 뉴스,

남자 2 : 사람들이 많이 어떻게,

손용수 : 지금 우리가 세력은 다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선까지, 인근 어선까지 다 동





원시켜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인명피해는 뭐 지금 속단할 수는 없지만 그
래도,

남자 2 : **

손용수 : 예. 그래도...

남자 2 :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손용수 : 예. 수고하십시오.

남자 2 : 예. 보고서를 안전행정부 상황실 아시죠?

손용수 : 예.

남자 2 : 거기다가 좀 나오는 대로 해서 보내주세요, 속보를.

손용수 : 예, 알겠습니다.

남자 2 : 예.

손용수 : 수고하십시오.

남자 2 : 수고하세요.



◆ 녹음 순번 : #16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09시 58분 02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손용수 / 해양수산부 상황실

손용수 : 예. 감사합니다. 상황실 손 경사입니다.

남자 1 : 예. 바쁘는데 죄송합니다. 해양수산부 상황실입니다. 저희 과장님 좀 바꿔드리겠습
니다.

손용수 : 예.

남자 2 : 여보세요?

손용수 : 예.

남자 2 : ** 과장인데요. 지금 그 선박 상태가 어때요, 여객 상태가?

손용수 : 90도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고요.

남자 2 : 90도?

손용수 : 예. 우리 인근 세력에서 지금 구조 중에 있습니다.

남자 2 : 구조, 지금 실제 구조 착수했어요?

손용수 : 예.

남자 2 : 지금 몇 명이나 구조됐어요?

손용수 :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자 2 : 체크? 그다음에 침몰 상태는 대충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손용수 : 예?

남자 2 : 지금 그게 침몰이 완전 될 것 같아요, 빠른 시간 내에?

손용수 : 아마 그 상태에서 완전 들어가지는 않을 건데. 현재 선박 상태가 옆으로 기울어
진 상태고 부력을 이용해가지고 하면 그대로 침몰은 안 될 겁니다.

남자 2 : 아, 그럼 사람들은 어딴어요, 지금?

손용수 : 지금 사람들은 바깥에 나오고 있어가지고 현장에서 우리 경비정이 구조 중에 있습니다.

남자 2 : 지금 그 경비정은 1척 도착돼 있나요?

손용수 : 예?

남자 2 : 몇 척이나... 본청만 도착해 있어요?

손용수 : 우리 목포에서 헬기가 지금 3대 나가 있어가지고 헬기 3대하고 경비함정 6척이 도착하면, 지금 도착해서 구조 중에 있습니다.

남자 2 : 6척 전부 도착했습니까?

손용수 : 아직, 아까 처음에... 경비정이 현장에 1척 있습니다, 지금.

남자 2 : 1척?

손용수 : 예.

남자 2 : 해군 배가 10시 10분에 도착한다 하지요?

손용수 : 예. 그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남자 2 : 예, 알겠습니다.

손용수 : 예.





◆ 녹음 순번 : #17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02분 35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손용수 / 소방방재청

손용수 : 예. 감사합니다. 상황실 손 경사입니다.

남자 1 : 예. 수고 많습니다. 여기 소방방재청입니다.

손용수 : 예, 예.

남자 1 : 예. 지금 저희가 지원을 위해가지고 헬기 한 6대 정도 띄웠거든요.

손용수 : 예.

남자 1 : 예. 지금 저희가 기본적인 상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손용수 : 지금... 우리 지금 필요한 게 헬기도 필요하지만 헬기가 지금 우리 해가지고 4대가 있거든요.

남자 1 : 예. 6대 지금 보냈습니다.

손용수 : 아... 그러면 그쪽 현장 지휘세력이 목포 쪽이거든요. 목포 쪽하고 한번 연결해가지고 구조 조정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남자 1 : 목포에, 목포를 얘기하는 게 목포 현장,

손용수 : 예. 목포 해경입니다.

남자 1 : 지금 거기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죠?

손용수 : 잠깐만요. 전화 끊지 마십시오.

남자 1 : 예.

(전화 끊김)





◆ 녹음 순번 : #18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06분 27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손용수 / 목포서 상황실장

남자 1 : 예. 목포 상황실장입니다.

손용수 : 예. 본청 상황실인데요.

남자 1 : 예, 예.

손용수 : 서장님 현장 도착시간이 언제쯤 될까요?

남자 1 : 3009함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용수 : 아, 빨리 좀 확인해가지고 전화 주십시오, 이 번호로.

남자 1 : 예, 알겠습니다.

손용수 : 국장님이, 국장님 지금 문의사항입니다.

남자 1 : 예. ** 2442. 알겠습니다.

손용수 : 예.



◆ 녹음 순번 : #19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07분 33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손용수 / 국정원 상황실

손용수 : 예. 감사합니다. 상황실 손 경사입니다.

남자 1 : 아, 예. 수고 많으십니다. 국정원 상황실입니다.

손용수 : 예.

남자 1 : 예. 그 여객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나요?

손용수 : 잠깐만요. 지금 상황이 지금 구조 중에 있습니다, 현재.

남자 1 : 배들이 다 도착했나요? 우리 배들,

손용수 : 우리 함정 도착해가지고 구조 중에 있습니다.

남자 1 : 함정 도착했어요?

손용수 : 예. 지금 한 56명까지 편승을 시켰어요.

남자 1 : 56명?

손용수 : 예.

남자 1 : 그다음에 사고 원인은 아직은, 현재 기초적인 것만 좀 확인할 수 있나요?

손용수 :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남자 1 : 만들고 계세요?

손용수 : 예.

남자 1 : 바로 좀 보내주시고요.

손용수 : 예.

남자 1 : 암초라 그러던데 맞나요?

손용수 : 예?

◆ 녹음 순번 : #20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10분 18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손용수 / 머니투데이 기자

손용수 : 예. 감사합니다. 상황실 손 경사입니다.

여자 1 : 예. 고생 많으십니다. 저 머니투데이에 이해미 기자입니다.

손용수 : 예.

여자 1 : 예. 여객선 침몰 관련해서 좀 여쭙보려 그러는데요.

손용수 : 예. 지금 저희가 조치하는 상황실이고요. 담당부서가 032-835에,

여자 1 : 잠시만요. 835에. 예.

손용수 : 2312입니다.

여자 1 : 여기가 어떤 부서인가요?

손용수 : 예. 홍보팀입니다. 대변인 쪽입니다, 대변인.

여자 1 : 아~ 지금 상황실에서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손용수 : 아, 지금 다 조치하고 있는데. 승객들...

여자 1 : 거기 본청 아닌가요?

손용수 : 예, 본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조치하고 있다고요, 지금.

여자 1 : 그러니까 전화를 못 받으시는,

손용수 : 예, 그러죠.

여자 1 : 왜죠?

손용수 : 전화하면 그쪽에서, 바로 그쪽에서 답합니다, 대변.

여자 1 : 알겠습니다.

손용수 : 예.



속기법인 대한은 업무상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합니다.

◆ 녹음 순번 : #21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12분 18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손용수 / 목포서 상황실

남자 1 : 예. 감사합니다. 목포서 상황실입니다.

손용수 : 예. 수고하십니다. 본청 상황실 손 경사입니다. 여보세요?

남자 1 : 예. 말씀하십시오.

손용수 : 지금 사고 시간 때문에 전화 드렸습니다.

남자 1 : 사고시간이요?

손용수 : 예.

남자 1 : 사고 시간이 08시 58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손용수 : 58분. 접수가 그러면 신고자 접수가 58분이고,

남자 1 : 예.

손용수 : 58분 딱 **

남자 1 : 예, 예.

손용수 : 58분이고,

남자 1 : 58분입니다.

손용수 : 병풍도 북방 1.8해리고요.

남자 1 : 예, 예.

손용수 : 예, 알겠습니다.

남자 1 : 예.





◆ 녹음 순번 : #22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15분 14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손용수 / 안전행정부 상황실

손용수 : 예. 감사합니다. 상황실 손 경사입니다.

남자 1 : 예.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안행부 상황실인데요.

손용수 : 예, 예.

남자 1 : 예. 지금 침몰 관련해갖고, 여객선 침몰 관련해갖고 상황이 되면 저희한테도 팩
스라든가 이런 거 좀 계속 수시로 넣어줬으면 해 갖고요.

손용수 : 예, 알겠습니다.

남자 1 :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손용수 : 손용수 경사입니다.

남자 1 : 예, 알겠습니다.

손용수 : 예.





◆ 녹음 순번 : #23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18분 39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손용수 / 목포서 상황실

남자 1 : 예. 목포 상황실입니다.

손용수 : 예. 여기 본청입니다. 지금까지 총 몇 명 구조했습니까?

남자 1 : 지금까지요?

손용수 : 예.

남자 1 : 지금 죄송합니다. 브라보 512에서 아까 6명 구조해가지고 인근에 있는 서거차도
에다가 하선한 것 이후로는 저희가 아직 추가로 들어온 거 없습니다.

손용수 : 123정 없습니까? 구조했다는데, 편승시켰다는데.

남자 1 : 123정은 배가 너무 기울어가지고 접안을 시도하려다가 못 했대요. 지금 상황이
저희 서장님께서 지금 배가 같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승객들 보고 ‘지금 바
다로 얼른 빠져나와라, 바다로 뛰어내려라’ 지금 그렇게 방송 지시해 놓았습니
다.

손용수 : 아까 123정에서 50명 편승시켰다는 건 맞는 겁니까?

남자 1 : 50명 편승시켰다고요? 아니, 지금 저희도 하도 여러 군데 막 하다 보니까,

손용수 : 아니, 지금 메신저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됐거든요, 보고가.

남자 1 : 아, 뭐가, 메신저 뭐로요?

손용수 : 메신저.

남자 1 : 메신저로요?

손용수 : 예.

남자 1 : 아, 거기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손용수 : 하여튼 중요한 게 지금 다른 게 아니라 구조세력 구조 진행이거든요. 구조 진행을 여기서 시간하고 몇 명 딱 어디서 어디 세력이 구조했는가 그걸 다 올려서, 이게 지금 청장님께서 다 옆에 보고 계시는데, 메신저 다 보고 있어요. 다른 거 올리지 말고 구조세력만 하세요.

남자 1 : **

손용수 : 구조 진행하고 현재 지금 상선이 몇 척입니까, 그 구조하고 있는 게?

남자 1 : 예. 상선하고 어선 합쳐갖고 한 10척 이상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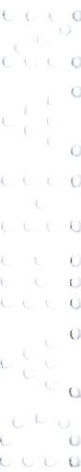
손용수 : 상선하고, 상선이 2척 있고 어선이 8척 있네요?

남자 1 : 예. 지금 상선이 그 정도 됩니다.

손용수 :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바로바로 좀 올려주십시오.

남자 1 : 예, 예.

손용수 : 예.





◆ 녹음 순번 : #24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23분 01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 안전행정부 재난인력과 / 본청 상황실 손용수

남자 1 : 예. 본청 강 소령입니다. 대신 전화 받았습니다.

여자 1 : 예. 바쁘신데 죄송한데 안행부 재난인력과의 김현정입니다.

남자 1 : 예.

여자 1 : 오늘 사고 관련해서 혹시 연락체계 파악해 놓은 거 있으면 팩스를 좀 하나 받으려고 합니다.

남자 1 : 아, 지금 여기 한창 준비 중이어가지고요. 지금 아직까지 팩스로 보낼 만큼 정리된 사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자 1 : 그냥...

남자 1 : 해군인데요. 해경분들도 지금 긴박하고 이래서 보고서 만들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니까.

여자 1 : 그러면 그냥 상황보고 한 장짜리... 아니, 연락처만 대충 파악해 놓은 것 좀 없나요?

남자 1 : 연락처요?

여자 1 : 예.

남자 1 : 어떤 연락처 말입니까?

여자 1 : 아니, 비상, 해양수산부나 해양경찰청 다른 지방에 있는 청에 현재 상황 보고하는 연락체계를 파악해 놓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남자 1 : 아, 잠시만 계십시오. 잠시만 계십시오.



여자 1 : 예.

손용수 : 예.

여자 1 :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손용수 : 여보세요?

여자 1 : 안행부 재난인력과의 김현정입니다. 바쁘신데 죄송한데요.

손용수 : 예.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여자 1 : 지금 긴급 선박사고 관련해가지고 사고 관련해가지고 각 부처 관계기관 연락처
혹시 파악된 거 있으면...

손용수 : 아, 지금 안 됐습니다, 지금.

여자 1 : 아예...

손용수 : 지금 우리 경비정 하고 있고요. 뭐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여자 1 : 아니, 뭐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 연락처나 뭐 그런 거 혹시 돼 있나 해
서요.

손용수 : 잠깐만요.

여자 1 : 예.

손용수 : 지금,

여자 1 : 예. 급박한 거 아는데요. 아무 거나 그냥 있는 대로 팩스 하나만 넣어주시면...

손용수 :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여자 1 : 예.

손용수 : 여보세요?

여자 1 : 예.

손용수 : 아, 지금 바빠가지고 좀 이따 좀 하십시오.



여자 1 : 알겠습니다.

손용수 : 예.





◆ 녹음 순번 : #25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26분 08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손용수 / 안전행정부 재난관리국장

손용수 : 예, 감사합니다. 상황실 손 경사입니다.

남자 1 : 예, 해경상황실이죠?

손용수 : 예.

남자 1 : 예, 예. 저는 안전행정부 재난관리국장이예요. 윤재철입니다.

손용수 : 예, 안녕하십니까?

남자 1 : 예, 안녕하세요? 지금 상황실장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손용수 : 지금 실장님께서 청장님 보고 들어가가지고요.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
진행을 말씀드릴게요.

남자 1 : 예, 지금 구조인원은 총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손용수 : 지금 현재 지금 구조인원이요. 지금 우리 헬기에서 6명.

남자 1 : 예, 지금 언론에는 120명이라고 나오는데.

손용수 : 예, 지금 우리 보고된 게 정확하게 지금 행정선 50명,

남자 1 : 총계가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여보세요?

손용수 : 예, 여보세요?

남자 1 : 예, 예.

손용수 : 예, 지금 우리 헬기에서 6명, 그다음에 우리 경비정에서 50명,

남자 1 : 예, 56명이고, 총.

손용수 : 예, 진도 행정선에서 50명 여기까지 우리한테 보고 들어왔습니다.





남자 1 : 그럼 106명 정도네요.

손용수 : 예.

남자 1 : 120명이라는 것이 맞겠네.

손용수 : 예, 예.

남자 1 : 예. 120여 명이구먼요.

손용수 : 예.

남자 1 : 그리고 그것을 지금 어느 정도 좀 되는 대로 해경에서도 브리핑할 계획이 있나
요?

손용수 : 지금 현재 하려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남자 1 : 몇 시에 할 거죠?

손용수 : 지금 잠깐만요. 어느 정도 개요는 나오고 그래가지고 구조한 거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남자 1 : 우리가 지금 10시 반에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손용수 : 아... 예. 잠깐만요. 몇 시에 하신다고요?

남자 1 : 우리는 10시 반에 할 예정이에요.

손용수 : 10시 반요? 예, 알겠습니다.

남자 1 : 그리고 해경 경비정은 지금 몇 대나 가 있어요?

손용수 : 우리 경비정 목포 해경만 해도 6척이 현장에 도착,

남자 1 : 6척?

손용수 : 예.

남자 1 : 그리고 해군 함정은 몇 대나 도착해 있는 걸로 나옵니까?

손용수 : 지금 목포... 지금은 현장에 도착한 것은 우리 해경 쪽하고 그다음에 상선.

남자 1 : 해군도 도착했다던데?





손용수 : 예. 그러니까 지금 파악된 게.

남자 1 : 예. 해군은 지금 파악이 안 됩니까?

손용수 : 예.

남자 1 : 그리고 지금 아까 행정선이라는 것은 하나 지금 진도군 겁니까?

손용수 : 예, 예.

남자 1 : 그리고 헬기는 지금 포항에서도 헬기가 왔습니까? 지금 해경 헬기만 떠 있습니까?

손용수 : 뭐 말입니까?

남자 1 : 헬기가. 헬기 구조가 지금 해경 헬기만 현장에 와 있나요?

손용수 : 예, 예.

남자 1 : 포항이나 저쪽 국방부 쪽에서는 지금 헬기 온 게 없어요?

손용수 : 예.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도착해서 있는 건지 지금 저희들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남자 1 : 우리 지금 9시 45분부터 우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하고 있어요, 안전행정부에서도.

손용수 : 예.

남자 1 : 그래요. 상황 있는 대로 좀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손용수 : 예, 알겠습니다.





◆ 녹음 순번 : #26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29분 53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손용수 / 국정원 상황실

손용수 : 예, 감사합니다.

남자 1 : 여보세요?

손용수 : 예.

남자 1 : 국정원 상황실입니다.

손용수 : 예.

남자 1 :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언론에 바다로 뛰어내리라는 방송이 나왔다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손용수 : 아, 예, 저희들도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지금,

남자 1 : 그러면 현재 지금 구조상황 나간 배하고 몇 명이나 구조 됐습니까, 배 숫자하
고?

손용수 : 잠깐만요.

예. 여보세요?

남자 1 : 예, 예. 여보세요?

손용수 : 예.

남자 1 : 예. 현재 지금 구조 배하고 몇 명이나 구조가 됐고,

손용수 : 지금 총 우리가 집계하고 있는 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남자 1 :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전화 끊김)





◆ 녹음 순번 : #27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42분 04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손용수 / 소방방재청 상황실

손용수 : 예. 예. 감사합니다. 상황실 손 경사입니다.

남자 1 : 예. 안녕하세요? 여기 소방방재청 상황실입니다. 해경 상황실이죠?

손용수 : 예.

남자 1 : 예. 여기 소방방재청 상황실입니다

손용수 : 예.

남자 1 : 예, 예. 진도 사고 관련해서요. 말씀드려도 되나요?

손용수 : 뭘 말입니까? 말씀하십시오.

남자 1 : 예. 저희 헬기가 11대가 출동했거든요. 그래서 공중에서 해경에서 헬기 하나가
지휘를 하셔야 돼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손용수 : 아, 잠깐만요.

남자 1 : 예. (전화 끊김)





◆ 녹음 순번 : #28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48분 21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손용수 / 직원

남자 1 : 감사합니다. 상황실 박 경장입니다.

손용수 : 어. 손용수인데, 지금 이 배가 몇 시에 출항한 거야, 어제?

남자 1 : 어제 22시. 잠깐만요. (옆 사람에게 물어본 후) 어제 21시입니다.

손용수 : 21시에 출항해가지고.

남자 1 : 예.

손용수 : 아니, 정확하게 어제 21시에 출항해가지고 몇 시에 도착 예정인데?

남자 1 : 21시에 해가지고 도착 예정이 제주도 11시 정도요.

손용수 : 아...

남자 1 : 그리고 승객명부랑 그 오염, 아니, 유류적재물 방금 보냈습니다.

손용수 : 잠깐만. 전화 끊지 마.

남자 1 : 예.

손용수 : 여보세요?

남자 1 : 예, 형님.

손용수 : 어. 말해. 어제 21시에 출항해가지고 몇 시에 도착 예정이었어?

남자 1 : 11시요, 오늘 11시.

손용수 : 1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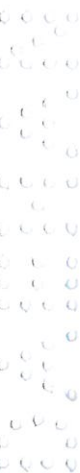
남자 1 : 예.

손용수 : 알았어.

남자 1 : 그리고 승객은 447명.

손용수 :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남자 1 : 예, 예.





46/80

三



◆ 녹음 순번 : #30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03분 45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 일반인

남자 1 : 예. 본청 상황실 경위 송영근입니다.

남자 2 : 예. 해경 종합상황실이요?

남자 1 : 예.

남자 2 : 지금 제주도 가는 배 좌초된 거 구조 명단이나 아니면 확인 좀 할 수 있을까요?

남자 1 : 실례지만 어디신가요?

남자 2 : 제가 저희 직장동료 아들 되는 사람이고요. 아들 되는 사람... 아니, 아버지가 동료고요. 지금 급히 학교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확인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남자 1 : 아, 사실은 지금 이제 구조자 명단까지는 확인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남자 2 : 아, 지금 현재요?

남자 1 : 예. 계속 구조 중인 상황이라서 인원수 정도를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명단 확인은 사실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남자 2 : 아,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런 명단이 되면 확인할 수 있는 번호가 이 번호인가요?

남자 1 : 예. 이 번호로 전화하시면 명단이 있으면 확인은 가능하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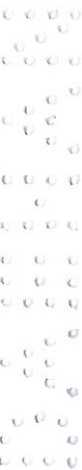
남자 2 : 수시로 전화 걸면, 전화 드리면 되나요?

남자 1 : 지금 상황이 조금 바빠진 한데, 나중에 정리되시면 전화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남자 2 : 예.

남자 1 : 예.





남자 1 : 그 주위에 있었던 민간 동원 선박입니다.

손용수 : 아, 아리랑은 어선입니까?

남자 1 : 아리랑은 어선은 아닌 것 같고요.

손용수 : 진도... 여보세요?

남자 1 : 예. 진도 근해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파악되는데,

손용수 : 행정선에서 50명 구조했다는데 그거 맞습니까?

남자 1 : 글썄요. 지금 정확하게... 아, 아리랑호가 행정선입니다.

손용수 : 아, 행정선에서 50명 구조한 거예요?

남자 1 : 예. 진도군 조도면 관공선입니다.

손용수 : 예. 조도면 관공선이고요?

남자 1 : 예, 예.

손용수 : 그러면 18, 47, 32, 50명 그거네요.

남자 1 : 예.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50, 79, 18 해가지고 147명입니다.

손용수 : 147명이요?

남자 1 : 예, 예.

손용수 : 알겠습니다.

남자 1 : 예.





◆ 녹음 순번 : #32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09분 57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 안전행정부 재난관리국장 / 본청 경비안전국장 이춘재

남자 1 : 예. 본청 상황실 경위 송영근입니다.

남자 2 : 아, 예. 해경이죠?

남자 1 : 예.

남자 2 : 안전행정부 재난관리국장이에요.

남자 1 : 아, 예, 안녕하십니까?

남자 2 : 예. 지금 구조인원은 지금 현재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남자 1 : 아,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147명으로 현재까지 집계하고 있습니다.

남자 2 : 147명이요?

남자 1 : 예. 추가로 있을 수 있는데 아직 파악은 안 되고...

남자 2 : 그 근처에서 지금 듣기로는 물 위에 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데.

남자 1 : 아, 잠시만요.

지금 상황을 파악... 저희도 지금 구조인원 파악하느라고 상황을 파악 중인데, 지금 함정에서 확인 중이어서 그거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2 : 현재 지금 구조가 왜 이렇게 더뎠지는 거죠? 지금 근처에 배들은 많은데.

남자 1 : 현재까지 최대한 구조를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남자 2 : 배가 지금 침몰했어요, 안 했어요?

남자 1 : 거의 침몰하고 선수 부분 조금 이렇게 수면 상에 조금 나타나 있는 그런, 지금 화면으로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자 2 : 아... 지금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소리네요, 그러면?



남자 1 : 우선은 해상으로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아직 사실은 선내에 어느 정도 있는지
현장하고 확인이 안 되... 선내에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니
까요. 그걸,

남자 2 : 경비국장님은 지금 어디 가 계신가요? 왜 핸드폰도 안 받죠?

남자 1 : 아, 지금 상황실 이쪽에 계십니다.

남자 2 : 아... 그런데 왜 이렇게 통화가 안 되나요? 그분 지금 좀 바꿔줄 수 있어요?

남자 1 :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이춘재 : 예. 경비국장입니다.

남자 2 : 예. 국장님, 저 재난관리국장이에요.

이춘재 : 예, 국장님.

남자 2 : 핸드폰을 안 받으셔서.

이춘재 : 아, 예.

남자 2 : 저희 지금 구조인원이 147명밖에 안 된다는데 거기 배 근처에는 사람이 떠 있는
사람이 없다는데. 배는 이제 다 가라앉았고.

이춘재 : 많이 못 나왔어요, 안에서.

남자 2 : 아~ 지금 배 안에서 많이 갇혀 있습니까?

이춘재 : 예, 갇혀 있습니다. 피해가 좀 큰 상황인데요.

남자 2 : 아이고, 사망자가 엄청 나오겠네요.

이춘재 : 예. 그런데 이제 정확한 통계는 배에서 각 배별로 있어갖고 통계가 지금 아직
안 나오거든요, 어선들이 구조한 인원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바다 상태는 괜찮
아요. 바다 상태는 괜찮으니까 바다 밑에 떠 있기만 하면 하는데 집계를 내놔야
지금 구조인원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남자 2 : 지금 우리 중대본으로 국장님 누구 좀 직접적으로 일에 거시기 않는 과장급이나
한 사람 좀 빨리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상황실로.

이춘재 : 예, 알겠습니다.

남자 2 : 상황실로.

이춘재 : 예.

남자 2 : 지금 바로 좀 보내주세요.

이춘재 : 예.

남자 2 : 공문은 차후에 보낼 테니까요.

이춘재 : 예, 알았습니다.

남자 2 : 예.





◆ 녹음 순번 : #33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12분 55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손용수 / 안전행정부 상황실

손용수 : 예.

남자 1 : 아, 예. 해경 종합상황실이죠?

손용수 : 예.

남자 1 :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안행부 중대본 상황실인데요.

손용수 : 예.

남자 1 : 죄송합니다만 혹시 애들 여행자보험이라든지 보험관계는 알 수가 있나요?

손용수 : 지금 그것까지는 아직 안 되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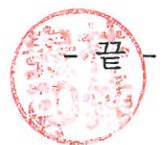
남자 1 : 아직이요?

손용수 : 예.

남자 1 : 알겠습니다. 고등학교하고 이쪽이 다 연락이 안 돼서. 알겠습니다.

손용수 : 아, 예.

남자 1 : 예.





◆ 녹음 순번 : #34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14분 13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손용수 / 세계일보

손용수 : 예. 예. 감사합니다. 상황실 손 경사입니다.

여자 1 : 예. 세계일보인데요. 진도에서 지금 구조되신 분들 지금 어디로 이송됐나요?

손용수 : 지금 서거차도에 계십니다.

여자 1 : 어디요?

손용수 : 서거차도요.

여자 1 : 서거차로요?

손용수 : 예. 거차도.

여자 1 : 아... 그러니까 뭐 병원으로 이송된 게 아니에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끊김)





◆ 녹음 순번 : #35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15분 07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손용수 / 여자 1

손용수 : 예. 예. 감사합니다. 상황실 손 경사입니다.

여자 1 : 예. **인데요. 진도에서 구조되신 분들 어느 병원으로 가신다고요?

손용수 : 병원이 아니고요. 지금 서거차도에 계십니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비정이 이동해가지고 할 건데요.

여자 1 : 아, 아직 이동 중인 거예요?

손용수 : 예. 지금 집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지금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여자 1 : 아~ 혹시 만약에 이거 이송되면 어디로 가나요?

손용수 : 예?

여자 1 : 이송되면 어느 병원으로 가나요?

손용수 : 지금 현재 상태에 따라서는 목포로 가지 않을까요? 목포 쪽 한국병원이나 그쪽으로 가야죠, 가면.

여자 1 : 목포 한국병원이요?

손용수 : 예. 그런데 정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여자 1 : 아, 예, 정확하지 않고요?

손용수 : 예.

여자 1 : 알겠습니다.

손용수 : 예.



◆ 녹음 순번 : #36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16분 09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손용수 / 총리실 안전관리과장

손용수 : 예. 감사합니다. 상황실 손 경사입니다.

남자 1 : 예. 총리실 안전관리과장인데요.

손용수 : 예.

남자 1 : 지금 현재 구조상황이 어떻습니까?

손용수 : 현재 우리 경비정하고,

남자 1 : 아니, 아니, 몇 명이 구조가 됐어요?

손용수 : 147명입니다, 우리 확인된 숫자로.

남자 1 : 지금 배가 침몰이 됐는데 147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그러면,

손용수 : 지금 147명인데요. 인근에서 지금 어선들도 다 구조하고 있고, 어선들이 구조한
인원은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남자 1 : 아~ 해경에서 구조한 해경 구조가 147명?

손용수 : 예, 예.

남자 1 : 아~ 나머지는 기타.

손용수 : 예, 예.

남자 1 : 음... 그다음에 그 사고 원인이 뭐라고 나왔어요?

손용수 : 지금 압초 위를 올라탔다고 하는데 지금 정확하게 그 이야기는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남자 1 : 아~ 좌초로 추정하는 거고?

손용수 : 예.



남자 1 : 예. 그다음에 지금 구조 후에 대처할 사항이 뭐가 있나요?

손용수 : 저희들이 보면 저쪽에서 구조한 인원을 파악을 먼저 해가지고 병원으로 후송 조치를 해가지고,

남자 1 : 병원 후송?

손용수 : 예. 그게 가장 필요한 거죠. 119 같은 데서 목포로,

남자 1 : 병원 후송?

손용수 : 예.

남자 1 : 또 병원 후송 말고는 다른 건 없습니까?

손용수 : 지금 뭐 피해대책본부나 이쪽에도 우리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 1 : 그런데 학생들 중에서...

손용수 : 잠깐만요.

남자 1 : 예.

손용수 : 지금 장관님께서 도착하셔가지고요. 잠깐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남자 1 : 예. 전원 구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거기서 확인이 안 됩니까?

손용수 : 뭐 어떤 거 말입니까?

남자 1 : 학생들, 학생들하고 승선원들.

손용수 : 지금 구조를 147명을 지금 집계하고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남자 1 : 그것 말고는,

손용수 : 예. 지금 저희들이 숫자가,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려고 하면 집계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숫자를 했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남자 1 : 그 현장에서는 누가 지휘를 하고 계세요?



손용수 : 지금 목포해경서장님이 현장에서 지휘하고 있습니다.

남자 1 : 그런데 그걸 실시간으로 중계가 안 돼요? 대통령께서 지금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를 하고 계시는데, 배가 침몰이 됐는데 이게 아직 몇 명이 구조됐는지 지금 상황실에서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손용수 : 지금 숫자가 파악을, 숫자를 하고 있는 건... 지금 육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다이고 그다음에 **

남자 1 : 어쨌거나 바다 상에 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손용수 : 지금 현장에서 떠 있는 사람들은 다 구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근에서 우리 경비정이,

남자 1 : 아직도 구조를 하고 있는 거네? 화면상으로는 보니까 떠 있는 모습들이 전혀 안 보이는데?

손용수 : 그러니까요. 거의 다 구조가 된 걸로 지금 추정을 하는데 숫자는 지금 확인되는 게 147명이라고요.

남자 1 : 아... 예. 지금 전화 받으시는 누구시라 그러셨어요?

손용수 : 예. 손용수 경사입니다.

남자 1 : 손.

손용수 : 용수 경사입니다.

남자 1 : 용수?

손용수 : 예, 예.

남자 1 : 알았습니다.

손용수 : 예.





◆ 녹음 순번 : #37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19분 42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 남자 1

남자 2 : 예. 상황실입니다.

남자 1 : **

남자 2 : 예.

남자 1 : 학생 뭐 전원구조 나오던데.

남자 2 : 아, 그거 확인 안 된 상황이거든요.

남자 1 : 확인 안 됐어요?

남자 2 : 예. 어디에서 그것이 나가는지 모르겠고요.

남자 1 : 지금 나오고 있어요.

남자 2 : 예. 나오는 건 봤는데요. 저 사항이 확인이 안 된 사항입니다. 어디서 확인했는지 모르겠어요.

남자 1 : YTN.

남자 2 : 그러니까 YTN이 어디에서 확인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확인이 안 된 사항입니다.

남자 1 : 확인으로는 불보스만 빼고는,

남자 2 : 예. 불보스만 빼고 다 지금 침몰한 상태입니다.

남자 1 : 학생들 다 나왔어요?

남자 2 : 그거는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확인이 안 됩니다, 지금.

남자 1 : 아, 그래요?

남자 2 : 예.



남자 1 : 해경에서 구조한 인원은...

남자 2 : 헬기에서요? 헬기에서,

남자 1 : 해경, 해경, 해경.

남자 2 : 아, 지금 해경에서 현재까지 우리 해경 경비정하고 헬기하고 그다음에 행정선하고 해가지고요, 그 사람들은 147명입니다.

남자 1 : 147명?

남자 2 : 예, 예.

남자 1 : 어선들은?

남자 2 : 어선들은 다 흩어져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집계가 안 돼요.

남자 1 : 아~ 집계 안 되고?

남자 2 : 예, 예.

남자 1 : 아, 알겠습니다.

남자 2 : 예.





◆ 녹음 순번 : #38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21분 41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손용수 / 일반인 / 본청 상황실

손용수 : 예. 감사합니다. 상황실 손 경사입니다.

여자 1 : 예. 지금 제주도인데요. 구조된 명단은 혹시 언제 받아볼 수 있나요?

손용수 : 지금 아직 안 됩니다.

여자 1 : 이게 지금 구조가 됐잖아요, 150명이.

손용수 : 예.

여자 1 : 명단 확인을 해야 가족들이 안심을 할 수 있는 거죠.

손용수 : 예. 저희들도 지금 명단하고 지금 거기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목포 거기서요, 현장에서. 현장에서 집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들어온 게 없습니다.

여자 1 : 그러면 지금,

손용수 : 예. 목포 쪽에 확인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여자 1 : 속보에 지금 340명이 지금 구조됐다는데 그건 맞는 거예요?

손용수 : 예.

여자 1 : 그러면 다른 학생들 말고 일반인들은요?

손용수 : 일반인도 지금 구조를 다 했습니다. 어느 정도 했는데요. 이 집계, 정확한 집계 안 나오는 이유가 어선도 구조하고 경비함도 구조하고 다른 화물선도 구조하고 그래가지고 그 인원을 다 집계를 해야 되니까 지금 그게 숫자가 안 맞는 겁니다.

여자 1 : 그럼 거기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죠, 목포는?

손용수 : 잠깐만... 지금 현재 목포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잠깐만요.



여자 1 : 그럼 어디는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남자 1 : 목포 해경 상황실 전화번호. 잠시만요. 061-241에. 여보세요?

여자 1 : 예.

남자 1 : 예. 2042번입니다.

여자 1 : 그러면 지금 배에 남아 있는 인원은 거의 없는 건가요?

남자 1 : 아,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저희가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 지금 어선도 그렇고 해경도 그렇고 해군에서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해경에서만 구조한 것만 집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자 1 : 예. 그런데 방금은 또 구조가 일반인까지 거의 다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남자 1 : 아~ 누가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네.

여자 1 : 방금 저하고 통화하신 분.

남자 1 : 잠시만요. 147명 구조됐답니다. 확인된 숫자입니다.

여자 1 : 그럼 이거를 지금 속보로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400명 구조됐다고 나와요.

남자 1 : 저희 해경에서 확인된 거는 147명입니다.

여자 1 : 그럼 다른 인원들은요?

남자 1 : 저희 해경에서 집계된 건 147명이고요. 그 외에는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여자 1 : 알겠습니다.

남자 1 : 예.



◆ 녹음 순번 : #39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27분 55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 안전행정부 종합안전상황실

남자 1 : 예. 해경청 상황실입니다.

남자 2 : 예. 수고 많으세요. 안행부 종합안전상황실의 임택호 중령이에요.

남자 1 : 예.

남자 2 : 현재까지 구조된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신원 확인된 인원들.

남자 1 :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현재 저희들하고 지도선하고 구조한 게 147명을 구조했고
요. 어선에서 구조한 것들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집계 중입니다.

남자 2 : 해경이 147명이고.

남자 1 : 예. 우리하고 행정선하고 구조한 게 147명입니다.

남자 2 : 행정선하고?

남자 1 : 예, 예.

남자 2 : 해군은요?

남자 1 : 해군 아직 없습니다.

남자 2 : 해군 없고?

남자 1 : 예. 아직까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남자 2 : 어선에서도 상당히 많이 구조를 했다는 얘기네요?

남자 1 : 예. 좀 구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파악 중입니다.

남자 2 : 파악 중인데 몇 명이나 했는지 혹시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남자 1 : 예,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남자 2 : 음...



남자 1 : 어선들은 다 지금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선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남자 2 : 지금 언론에 나오기는 고등학교는 다 구조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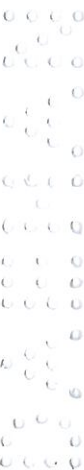
남자 1 :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남자 2 : 아, 그래요?

남자 1 : 예, 예.

남자 2 : 아, 예, 알겠습니다.

남자 1 : 예, 예.





◆ 녹음 순번 : #40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30분 49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손용수 / 세계일보 기자 / 본청 상황실

손용수 : 예. 감사합니다. 상황실,

여자 1 : 예. 세계일보인데요.

손용수 : 예?

여자 1 : 세계일보인데요.

손용수 : 예, 예.

여자 1 :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전원 구조됐다 그러는데 맞나요?

손용수 : 저희들도 지금 확인 안 되고 본청인데도 지금 본청에서 지금 집계하고 저희들이
나가는 것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확인된 것만 나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숫자가
지금 나간다는 것은 목포에서 대변을 했을 겁니다.

여자 1 : 혹시 목포 쪽에 상황실은 연락처가 어떻게 되나요?

손용수 : 잠깐만요.

남자 1 : 목포상황실 전화번호 061-241-2042번입니다.

여자 1 : 2042요?

남자 1 : 예.

여자 1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 1 :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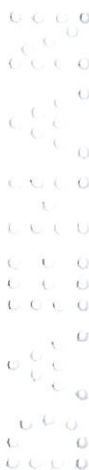
남자 1 : 아, 특별구조단이요?

손용수 : 예.

남자 1 : 아, 그러면 제가 중간에 다시 한 번 더 전화 드리겠습니다.

손용수 : 예, 알겠습니다.

남자 1 : 예.





◆ 녹음 순번 : #44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39분 03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손용수 / 일반인

손용수 : 예. 감사합니다. 상황실 손 경사입니다.

여자 1 : 예. 여보세요?

손용수 : 예.

여자 1 : 지금 학생들이 구조가 됐는지 알고 싶어서 전화 드렸는데요.

손용수 : 예. 누구십니까?

여자 1 : 아, 예. 이모인데요.

손용수 : 아... 지금 저희들이 숫자는... 구조했다는 얘기는 계속 듣고 있고요.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름까지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저희들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여자 1 : 그러면 전원이 다 구조됐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맞나요? 지금 그게 아니라고 또 나와 있어서.

손용수 : 아... 그쪽 현장에서 지금 경기교육청 그쪽에서 발표한 것은 그렇게 돼 있네요. KBS는 지금 발표가 돼 있고 그렇게 되고 있고요. 저희들은 현장에서 우리 경비 함정하고 어선하고 구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세력에서 구조를 해가지고 거기 또 또 파악을 한 거를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집계를 하려면 좀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자 1 : 아, 그럼 뉴스가 맞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손용수 : 아니, 아니요. 뉴스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 다른 쪽에서 구조한, 어선 쪽에서 구조를 해가지고 뉴스에 나갈 수도 있거든요.



여자 1 : 그럼 아이들이 지금 어디 가 있는 건가요?

손용수 : 지금 저희들이 그쪽 근방 가까운 거차도 그쪽에 피해, 대기할 수 있는 데 그쪽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가지고,

여자 1 : 어디요?

손용수 : 진도 밑에 서거차도 있습니다.

여자 1 : 서거차도요?

손용수 : 예. 서거차도 쪽에다 대피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도 이 상황을 계속 지금 집계하고 이름까지 다 맞춰야 되거든요.

여자 1 : 그러게요. 명단이 아직도 안 나왔어요?

손용수 : 예, 예.

여자 1 : 그러면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손용수 : 아... 저희들도 장담을 못 하는데 빨리 좀 해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전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화가 와가지고 계속 지금 답변하느라고...

여자 1 : 아... 그러면 거차도 그쪽에 전화번호 알 수 있어요?

손용수 :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전화를 주십시오, 이쪽으로.

여자 1 : 지금은 알 수 없고요?

손용수 : 예, 예.

여자 1 : 아, 예. 빨리 좀 파악 좀 부탁드립니다.

손용수 : 예, 예.

여자 1 : 예.





◆ 녹음 순번 : #45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44분 12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손용수 / 직원

손용수 : 감사합니다. 상황실 손 경사입니다.

남자 1 : 상황보고서 좀 된 것 좀 보내주십시오.

손용수 : 알았어.

남자 1 : 예.





◆ 녹음 순번 : #46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47분 34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 직원

남자 1 : 예. 상황실 박재형 경위입니다.

남자 2 : 승선원 명부 있지?

남자 1 : 예.

남자 2 : 확보되면 나한테 메일로 보내든 팩스로 보내라. 잘 안 들어왔다.

남자 1 : 팩스로 안 들어왔다고?

남자 2 : 응. 팩스로 다시 한 번 넣어줘.

남자 1 : 예, 알겠습니다.

남자 2 : 응.





◆ 녹음 순번 : #47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50분 01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손용수 / 일반인

손용수 : 예. 감사합니다. 상황실 손 경사입니다.

남자 1 : 예. 우리 중구 을왕동 주민들 여기 많이 ** 갔는데 그걸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 데.

손용수 : 뭐 때문에...

남자 1 : 아, 그거 해난사고 이번에 난 거 이중에 한 사람만 지금 병원에 있다고 연락이 왔고 다른 사람들은 아직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그러는데요.

손용수 :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남자 1 : 그럼 지금 구조된 인원이 어떻게 돼요, 공식으로?

손용수 : 아, 지금 인원수, 신원은 확인 안 됐고요. 162명으로 지금 확인돼 있습니다.

남자 1 : 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아직 확인이 안 됐네요?

손용수 : 예. 다른 어선에서 다 구조하고.

남자 1 : 예. 개개인 이름으론 확인이 안 되고요?

손용수 : 예.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남자 1 : 뉴스에서는 학생들 다 구조되고 전원 구조됐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건 정확히 확인 안 된 거예요?

손용수 : 예.

남자 1 : 예, 알겠습니다.

손용수 : 예.



◆ 녹음 순번 : #48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52분 23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손용수 / 직원

남자 1 : 예. 김** 경사입니다.

손용수 : 예. 수고하십니다. 본청 상황실에 손 경사입니다.

남자 1 : 예.

손용수 : 지금 현재 구조세력 그 시간하고 구조세력하고 인원수 지금 전체 사항 뽑은 거 있습니까?

남자 1 : 아, 뽑은 건 없고요. 지금 하고 있어요.

손용수 : 아~ 만들고 있어요?

남자 1 : 예.

손용수 : 지금 저한테 불러줄 수 있는 시간 되나요?

남자 1 : 지금요?

손용수 : 예. 간단하게 시간하고 세력.

남자 1 : 지금 목포에 19척,

손용수 : 뭐?

남자 1 : 목포에 19.

손용수 : 목포 해경에서?

남자 1 : 예. 일단 목포에 19, 군산 4, 완도 8,

손용수 : 뭘니까, 이게?

남자 1 : 경비함정.

손용수 : 경비함정 말고요. 그 구조, 구조.



남자 1 : 구조인원이요?

손용수 : 예.

남자 1 : 구조인원은 현재... 잠깐만요.

지금 현재요, 161명이고요.

손용수 :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자 1 : 시신 1구 인양하고.

손용수 : 예, 알겠습니다.

남자 1 : 예.





◆ 녹음 순번 : #49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54분 12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 일반인

남자 1 : 예. 해경청 상황실입니다.

남자 2 : 예. 아까 전화 드렸던 사람인데요. 그 제주도 배요.

남자 1 : 예?

남자 2 : 그 구출된 사람들 명단이 네이버에 뒀... 구출됐잖아요, 사람들, 전원 구출이라고.

남자 1 : 아, 전원 구출 아닙니다.

남자 2 : 아, 아직 아닌가요? 네이버에서는 그렇게 떠가지고. 저희 직원 동료 중에 아버지가 그쪽에 계신데 지금 그쪽으로 배에 학생이, 애가 지금 배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상황 좀 물어보고 그러는데 혹시 구출된 명단 좀 알 수 있을까요?

남자 1 : 아, 아직 명단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남자 2 : 아, 안 되고 있어요?

남자 1 : 예, 예.

남자 2 : 알겠습니다.

남자 1 : 예.





◆ 녹음 순번 : #50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55분 01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손용수 / 콜센터

콜센터 : 예. 감사합니다.

손용수 : 예. 본청 상황실 손 경사인데요. 지금 민원인들 전화 오면 이쪽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계속 해가지고 나가면 이쪽으로 돌려버리면 상황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콜센터 : 아니에요. 본청 상황실로 연결하지는 않아요.

손용수 : 예. 민원인들 전화 와가지고 전화 돌리지 마세요. 기자들도 그러고.

콜센터 : 아니, 이쪽에서는 연결 안 하고 있고요. 목포 상황실로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손용수 : 예, 알겠습니다.

콜센터 : 예.

